One pick 위클리 핫이슈

개봉 12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한 '블랙 위도우'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블랙 위도우' 올 최고 흥행작 예고

12일만에 200만 돌파…'분노의 질주' 뛰어넘어
4단계 불구 흥행세 계속…최고 기록 낼지 관심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슈퍼히어로 '블랙 위도우'가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가파른 흥행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여름시즌 극장가의 문을 활짝 열며 침체된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8일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에 따르면 7일 개봉한 '블랙 위도우'는 상영 12일째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누적 관객 203만1000여명을 기록했다. 올해 최고 흥행작인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가 5월19일 개봉해 상영 19일째인 6월6일 200만 관객을 동원한 기록을 뛰어넘었다.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는 17일 현재까지 누적 228만6000여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블랙 위도우'가 흥행세를 유지한다면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를 제치고 올해 최고 흥행작에 등극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블랙 위도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그동안 개봉 일정을 몇 차례 연기해야 했다. 7월7일 오후 5시(한국시간 기준) 전 세계 동시 개봉한 영화는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올해 첫 슈퍼히어로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기대를 모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상영관의 절반가량이 몰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각 극장이 밤 10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블랙 위도우'의 흥행세는 더욱 눈길을 끈다.

관심은 '블랙 위도우'의 최종 흥행 수치로 쏠린다. 28일 '모가디슈'와 '방법:재차의' 등 한국영화 기대작의 개봉 이전까지 이렇다 할 경쟁작이 없고, 여름시즌 가족 단위 관객을 끌어들일 만한 작품이라는 평가 속에 슈퍼히어로의 흥행력을 얼마나 과시할지 주목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활동 종료한 '놀면 뭐하니' MSG워너비의 '맏형과 막내'

"MSG워너비, 1집 공식 활동 종료!" 8인조 프로젝트 발라드 그룹 MSG워너비가 7일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톱10귀 콘서트'를 마침표 삼아 1집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석진·김정민·KCM·사이먼 도미닉·이동휘·이상이·박재정·원슈타인 등 8명의 멤버는 3월 시작한 '블라인드 오디션'을 거쳐 발라드곡으로 한여름 음원차트를 석권하기까지, 누구보다 치열한 4개월을 보냈다. "이제 8명이 '찐' 형제가 됐다"는 50대 '맏형 라인' 김정민과 20대 '막내 라인' 원슈타인을 각각 서면으로 만나 소감을 물었다.

김정민 "16년 기다림, 보상 받는 느낌"

데뷔 처음으로 그룹활동 묘미 느껴
후배들과 쌓은 추억들 잊지 못할것

가수 김정민(53)은 MSG워너비 활동을 위해 데뷔 27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수'라는 본명을 꺼내들었다. "대중에게 신인의 자세로 다가가겠다"는 마음을 담은 일종의 '부캐'(제2의 캐릭터)였다. 그렇게 '김정수'로 불리다 어느 순간 "다시 나를 찾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인생의 절반을 김정민으로 살아왔는데 본명으로 활동하니 새롭더군요. MSG워너비를 통해 참 많은 것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16년 공백기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최근 '나를 아는 사람', '바라만 본다', '난 너를 사랑해' 등을 모두 음원차트 상위권에 안착시켰다. 덕분에 10대와

김정민

20대 등 젊은 세대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맞았다.

"멤버들 모두 음원차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고, 정말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에요. '놀면 뭐하니?' 덕분에 지나가던 10대 친구들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요. 제 노래에 귀 기울여주시는 분들이 많아 행복해요."

데뷔 이후 처음으로 그룹 활동의 묘미도 맛봤다. 20대인 박재정·원슈타인 등 후배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며 팀워크를 쌓은 결과다. "화기애애한 단체문자방"에서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솔로 활동과 달리 팀은 화합이 필요하기에 배려와 양보가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서로를 위하는 분위기라 정말로 좋았어요. 세대차이가 문제될 일도 하나도 없었답니다. '신(新) 감각'을 따라가자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모두가 인상 한 번 찌푸린 적 없었죠."

'블라인드 오디션'에 참가할 때만 해도 "유재석에게 '깜짝 카메라'를 해주자"는 편안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MSG워너비에 누구보다 '진심'이 됐다. 아내와 세 아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남편과 아빠"가 된 것 같다며 뿌듯해했다.

"사실 촬영 때마다 '오늘은 집에 가는 날'이라며 탈락을 각오했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도 안 믿겨요. 어떤 일이든 준비하고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달았죠. 아이들이 '친구들이 아빠 얘기 많이 해' '친구가 사인해 달래'라며 좋아해줘서 기뻐요."

이제는 '김정민'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그는 MSG워너비의 '진정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다.

"8월21일 히트곡을 모아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놀면 뭐하니?'에서 불렀던 곡도 들려드릴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금이들'(공식 팬덤명)! 늘 감사드리고, MSG워너비를 잊지 않고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원슈타인 "내 인생 가장 특별한 4개월"

본업과 다른 부드러움 표현한 시간
7명의 친구·형님들, 행복 넘쳤죠

래퍼 원슈타인(정지원·26)이 MSG워너비 프로젝트에 지원한 이유는 단순했다.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꼽아온 MBC '무한도전'의 김태호 PD, 유재석 형님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모든 일들이 '팬심'에서 비롯된 셈이다.

"10대 때 저와 제 여동생의 웃음 중 70% 정도는 '무한도전'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기에 그 주역들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죠. 실제로는 조심스러워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 했지만…. 그렇게 참여한 MSG워너비의 멤버로 인생 중 가장 인상 깊은 4개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원슈타인

덕분에 "7명의 좋은 형과 친구"가 생겼다. 두 팀으로 나눠 유닛 활동을 할 때에는 "8명이 아닌 4명뿐이라 아쉬울 정도"였다고 한다.

"8명이 한 팀이 된 끈끈한 느낌이 내내 좋았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해주시니까 의지도 많이 됐고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동생들만 있어 어려서부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멋진 형님들이 생기니까 행복해요."

발표한 노래가 음원차트 1위를 거머쥔 성적은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준 결과"로 여기고 있다. "매회 '본방사수'해준" 어머니와 여동생도 마찬가지다.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만난 50대 어르신들까지 사인을 부탁하셔서 정말 신기해요. 가족들은 행복해하면서도 건강 챙기라며 걱정해요. 어머니께서는 부담 갖지 말되,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니 실수는 늘 조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십니다."

정이 듬뿍 든 멤버들과 이별을 할 때에는 그만 "상상하지도 못했던 눈물이 쏟아져" 흔났다. "내가 이만큼이나 마음을 열었구나 싶어서 신기했다"고 돌이켰다.

"마지막 녹화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생각이 많아진 상태였는데, (이)상이 형과 (박)재정이가 따스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건드렸죠. 이렇게 울 수 있을 정도로 제작진, 형들과 친해졌다는 걸 느껴서 헤어지는 것이 더욱 아쉬웠어요."

잠시 내려놓은, '본업'인 래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MSG워너비로 "언젠가 다시 건강하게 만날 그날"도 기다린다.

"사이먼 도미닉 형과 '우리는 본업과 참 다른 부드러움을 표현했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제는 힙합에 충실한 삶으로 돌아가야죠. 힙합에 대한 욕구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만큼 아쉬울 '소금이들'이 우울할 때마다 좋은 노래를 들어 건강한 힘을 다시 얻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유지혜 기자